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00 굿모닝! 채널A 1~2부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00 생활속 김성주의 모닝카페	25 TV50년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다큐 휴먼로드 지구촌사람들 7부	3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00 너는 내 운명 30 월화미니시리즈 <컬러 오브 우먼>(재)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여유만만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50 개그시대(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00 행복한 교실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TV 특강(재)	00 특집다큐 <참치전쟁 2부>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채널 A 뉴스와 경제 20 K-POPCON(재)	00 KBS 뉴스12	00 수목 드라마 <영광의 재인>(재)	00 MBC 뉴스 15 자일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눔행복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건강리뷰
20 다섯 남자의 맛있는 파티	00 글로벌 성공시대(재) 50 아름다운 사람들(재)		05 주말연속극 <천변의 입맞춤>(재)	30 한국의 스포스페셜
20 무비올릭(재)	00 KBS 뉴스 10 겨울강원 특선 앙코르(재) <스포츠는 건디다제1편>	10 호루라기(재)		10 SBS 뉴스 20 세상발견 유쾌(재)
30 여행이 좋다(재) 50 김수미의 소꿉(재)	00 아름다운 사람들(재) 10 현강로동 동행(재) 55 TV동화 행복한 세상(재)	00 KBS 뉴스타임 05 유로링 동물탐정(재) 35 달의 신나는 우주여행(재)	00 키즈 어드벤처 여기가 어디야 50 MBC 뉴스	10 인문학 열전
	00 KBS 오늘의 경제 10 TV50년 국민과 함께 드라마 50년(재)	00 TV 유치원 30 파워 마스크	00 뽀빠이 아이즈 30 안토 토토비	00 주블스 30 휴먼다큐 나눔
00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00 공감 특별한 세상	00 SBS 뉴스 프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다류로 만나는 세계
00 채널 A 뉴스네트워크 20 이수근의 바레드립니다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시내세상	00 KBS 6 뉴스타임 10 생생정보통 1~2부	00 뉴스매거진 50 생생정보통	30 생방송 KBC투데이
20 너는 내 운명 40 김수미의 소꿉	00 KBS 뉴스 7 30 스카우트	45 TV50년 기획 스타인생극장 <김용립 가족>	45 일일시트콤 <하이리! 짝은다리의 역습>	10 시사저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내달 꽃님이>
50 수목 미니시리즈 <송각네 아재가게>	25 일일연속극 <당신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비타민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아라>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송년특집 한반도의 TV 연예
	00 KBS 뉴스 9	55 수목 드라마 <영광의 재인>	55 수목 미니시리즈 <나도, 꽃>	55 SBS 대기행 <부리김은 나무 재자해>
00 뉴스A 50 컬러 오브 우먼(재)	00 환경스페셜 <북극곰 얼음위를 걷고싶다> 50 아름다운 사람들		05 MBC 청사50주년 특별기획 세시봉 친구들 2부	15 짝
	00 KBS 뉴스라인 40 수요기획		15 MBC 뉴스 24 35 자일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눔행복	25 나이트라인 35 휴먼다큐 나눔
00 뉴스&스포츠 20 김수미의 소꿉(재) ①:30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재)	25 KBS 뉴스 35 클래식 오디세이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내년 초 방송가 시트콤이 몰려온다

제작비 고효율·다양한 시청자층 확보 기대

방송가에 시트콤 바람이 불고 있다. 이달 초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이 잇따라 시트콤을 들고 나온 데 이어 최근 지상파 방송사까지 시트콤 제작에 뛰어들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시트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SBS는 오는 1월 '도롱뇽도사의 속사정'(가제)으로 5년 만에 시트콤을 선보인다. 10부작으로 제작되는 '도롱뇽도사의 속사정'은 SBS가 2007년 '달려라 고등어' 이후 처음 선보이는 시트콤으로 2인조 강도단이 신통한 도사를 사칭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는다.

이미 류현경과 이병준이 출연을 확정했고 임원희, 오달수 등 개성과 배우들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5월 종영한 '못말리는 결혼' 이후 3년 반 만에 시트콤에 도전한다. '선녀가 필요해'는 하늘나라에 살던 선녀 모녀의 세상 적응기를 그린 시트콤으로 심혜진, 차인표, 황우슬혜가 출연한다.

중편 JTBC는 개국과 동시에 김해자 주연의 시트콤 '청담동 살아요'를 선보였다. '청담동 살아요'는 김해자의 첫 시트콤 도전작인 데다 KBS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석윤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는 점에서 방송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MBN은 '갈수록 기세등등' '왔어왔어 제대로 왔어' '뽀빠이 아이즈' 등 종편 가운데 가장 많은 3편의 시트콤을 방송 중이고 케이블 오락채널 tvN 역시 시트콤을 기획하고 있다.

방송가가 시트콤에 다시 눈을 돌리는 배경에는 제작비 대비 고효율을 들 수 있다. 시트콤의 제작비는 미니시리즈의 60~70% 수준으로 아침 일일극과 유사하다. 그러나 주 5회 방송에 코믹한 에피소드 위주의 내용으로 시청자층을 확보하기 쉽고 시청률만 보장되면 드라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캐스팅의 폭도 넓다. 깊이 있는 연기력보



<SBS '선녀가 필요해' 대본 리딩 현장>

다는 순발력이 요구되는 만큼 신인 연기자들이 도전하기 쉽고 기존 연기자들에게는 이미지 변신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이리' 시리즈로 정일우, 윤시윤, 신세경, 황정승 등 신인 연기자들이 스타로 발돋움했고 정보서, 이순재 등 베테랑 배우들은 친근한 이미지를 더했다. /연합뉴스

'나가수' 효과 ... 콘서트 예매 건수 늘어

'나는 가수다'(나가수) 열풍으로 콘서트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내 최대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에 따르면 올해 판매된 공연 편수는 8445개로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1% 늘었다. 특히 콘서트는 지난해보다 57% 증가해 성장 폭이 가장 컸다.

인터파크는 조용필, 이승철, 이문세 등 거물급 대형 가수의 전국투어 공연을 비롯해 '나가수'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기 조명된 실력 있는 가수들의 콘서트까지 집중된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 가수별 순위에는 합동 공연을 한 박정현(+성시경), 이소라(+김범수)를 제외하고도 임재범(5위), 김범수(9위), 김연우(9위) 등 '나가수' 출신의 가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뮤지컬이다. '지킬 앤 하이드' '아이디' '조로' '맘마미아' 등 대작 뮤지컬의 장기 흥행 덕에 지난해보다 24% 증가했다. 외국인 관객은 '난타' 등 난버벌 퍼포먼스에 집중됐지만 인기 아이돌 그룹 JYJ의 김준수, 안재욱, 이지훈 등 한류 스타들의 출연 덕에 외국인 예매 건수도 3배 가량 늘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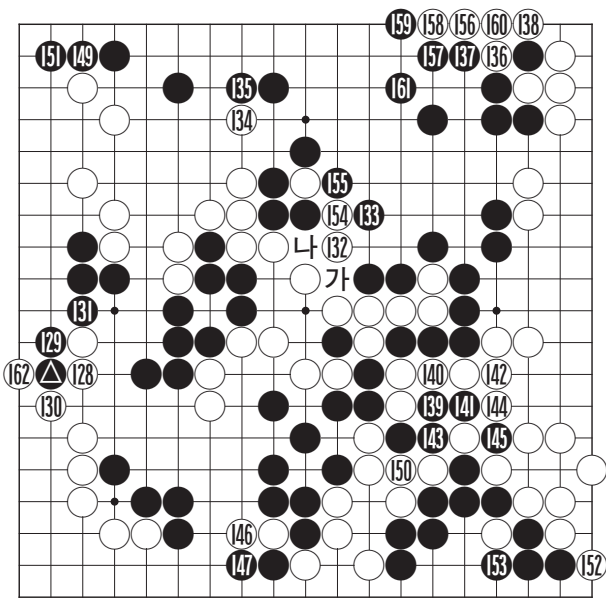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8일(음 12월 4일丁巳)

<p>子 36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수 있다. 48년생 정다운 사람을 만나리라. 60년생 주변의 변화 조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리 대처하라. 72년생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참으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84년생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24, 17</p>	<p>午 42년생 새로운 변화에 대처한다면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54년생 위기관리 능력을 심본 발휘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라. 66년생 전후 좌우를 잘 살펴야겠다. 78년생 먹을 배고고 생색 내지 않는다면 거북하리라. 행운의 숫자 : 43, 87</p>
<p>丑 37년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오리라. 49년생 혼화기가 발동하면 망신수가 보인다. 61년생 골고루 경험해 봐야 한다. 73년생 주변에서 크게 인정받을 수 있고 서광도 비친다. 85년생 흡족하게 처리되어 즐거운 하루가 펼쳐지겠다. 행운의 숫자 : 44, 06</p>	<p>未 43년생 일시적인 수족의 불평이 있을 수 있다. 55년생 발언을 최소한으로 하고 남의 말은 가급적 많이 경청하도록 하자. 67년생 헛생 각하다가 물건을 두고 다닐 수 있다. 79년생 쉽게 장담하는 것이 아니니라. 행운의 숫자 : 44, 15</p>
<p>寅 38년생 뜻밖의 손님이 큰 정보를 주고 간다. 50년생 마지막의 상황까지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하자. 62년생 흥보다 길이 더 많으니 안심하고 보내라. 74년생 몹시 힘들고 지겹더라도 참고 버텨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1, 78</p>	<p>申 44년생 일이 만만치가 않다. 56년생 잘못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배울 점은 꼭 본받는 것이 좋다. 68년생 슬픔과 기쁨이 더불어서 물러올 수도 있다. 80년생 속된 것을 흉내 내다가는 천박해지기 쉽다. 행운의 숫자 : 99, 42</p>
<p>卯 39년생 힘겨울 때 달려보면 결과가 좋으리라. 51년생 말만 앞세운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다. 63년생 기상천외한 황제수가 있을 수도 있다. 75년생 유치하고 저급한 수준의 상대 때문에 피곤한 하루가 되겠다. 행운의 숫자 : 92, 63</p>	<p>酉 45년생 꼭 도와 줘야 할 처지라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응하라. 57년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으리라. 69년생 즐거움은 있으나 마무리가 시원찮다. 81년생 과신했다가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4, 49</p>
<p>辰 40년생 구설 등의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2년생 내색하지 말고 태연하게 대하면 된다. 64년생 오늘 일을 미루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76년생 격식도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14, 35</p>	<p>戌 46년생 이익은 생기지만 소량이다. 58년생 무미건습 습관적 행위가 자제하고 가지 않는 일을 하자. 70년생 만남은 희망적이며 생산적이다. 82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나 반박해서 연습해 보자. 행운의 숫자 : 39, 45</p>
<p>巳 41년생 뒤를 한 번 돌아보라. 53년생 정확도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라. 65년생 방심하다가가는 울고불고할 수도 있다. 77년생 가장 자연스럽게 홀 흐르듯이 순리대로 처리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37, 48</p>	<p>亥 47년생 작은 것을 얻다가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 59년생 처리하기가 매우 수월해졌다. 71년생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임하면 가능하리라. 83년생 그대로 두면 아무런 탈도 없을 것이나 괜히 들추지 말라. 행운의 숫자 : 72, 2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제20회 光日盃 결승국 6보(128~162)
 광주·전남 직격비특대연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白 조영배 5단 (주택관리사회)



위협으로 끝난 천지대패

▲ 큰 곳기기는 하나 백 136이 역골내기로 더 큰 곳기이다. 이곳을 백이 두게 되어서는 많이 추격해서 계산이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김광식 5단이 진즉부터 노리고 있던 흑 139였다. 이곳은 조영배 5단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곳으로 흑 141로 단수하고 143으로 물고보니 느닷없는 곳에서 흑의 꽃놀이인 천지대패가 발생했다. 근근히 추격전을 벌이던 백으로서는 난데없는 핵폭탄이 떨어진 셈이다. 조영배 5단은 머리를 쥐어짜며 패배를 각오하고 146으로 패를 쓴 다음 다시 패러냈는데 이 패는 흑이 전혀 부담이 없어 백의 패배가 거의 확정된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광식 5단이 자만한 나머지 흑 149로 좌상귀에 밀고 들어가는 최소 패를 쓰고 만다. 백으로서는 너무도 고마울 뿐이라 열린 패를 해소한다. 이 패는 흑도 3집쯤 보태줘서 흑이 한 것이 없는 결과가 되었다. 흑은 이왕 패를 한 이상 중앙 '가', '나'의 곳이나 좌귀쪽 '다' 등 백을 계속 해서 괴롭혀야 했다. 중요한 시기에 조영배 5단이 백 162로 져서 김광식 5단의 손길이 멈춘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쑹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p>Guess what? 뭘까요? A : Guess what, Mom? B : What? A : I got through the exams with flying colors. B : Well done, son! I'm really proud of you. A : 엄마, 뭘까요? B : 무엇이? A : 제가 높은 성적으로 시험에 통과했거든요. B : 잘했구나, 아들! 난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 flying colors = (대)성공 * get through = 통과하다 * Guess what? = Can you guess what happened, Mom? * Well done! = The job was well done!</p>	<p>欲速不達(욕속부달) 하고자할 욕, 빠른 속, 아닐 부, 통달할 달 욕속부달(欲速不達)은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하(子夏)가 노(魯)나라의 거בור리는 고을의 태수가 되면서 공자에게 고을을 다스리는 방법을 묻자 "급히 서두르지 말고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라. 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고, 작은 것에 매달리다 보면 큰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출전] <논어> 자로편</p>	<p>阿奈法女孩 a' ērfā nǚhái 알파걸 '알파걸(Alpha Girl)'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학업이나 사업, 운동, 방면, 인간관계, 리더십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남성보다 더 능력있는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2006년 미국 하버드대학(哈佛大學) 덴 킨들러 교수의 '새로운 여자의 탄생 - Alpha Girl'이란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첫 자모 '알'을 붙여 알파걸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음역하여 阿奈法女孩로 표현합니다. 우린 그냥 영문대로 '알파걸'이라고 말하지만,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 그리스 문자 붙이듯 '기역(-)여성'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니다.</p>	<p>被害がだんだん廣まっています。 피해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A : 金さん、今朝のニュース見たんですか。 B : ええ、西海岸で船の事故で油が溢されて、大変みたいです。 被害がだんだん廣まっています。 A : 漁師の皆さん心配でしょうね。 B : それだけでなく、自然の破壊も酷いでしょう。 A : 김 씨는 오늘 아침 뉴스 봤어요. B : 예, 서해안에서 배 사고로 기름이 넘쳐서 큰일인거 같아요. 피해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A : 어부 여러분 걱정하시겠네요. B : 그뿐만 아니라 자연 파괴도 심하겠지요.</p>
<p><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p>	<p><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p>